

# AI 창작물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202311170 김범진

## 1. 서론

최근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글, 그림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하여 창작물의 수준이 높아지자 세계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에도 큰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큰 문제가 보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면서 타인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타인의 창작물을 훔쳐 쓰면서 창작물을 만드는 거라면 AI 창작물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 2. 본론

### 2-1. AI 창작물 저작권

AI가 발전하면서 AI 창작물도 발전하게 되었다. AI는 글, 그림, 음악까지 창작물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도 인공지능 창작물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창작물에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AI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저작권법을 봐야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한마디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창작을 주도해 감정과 사상이 표현된 저작물이어야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다.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큰 노력없이 창작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게 해준다면 개발자들은 창작물을 AI에 의존해 작품을 공장처럼 여러 개 찍어내어, 기존에 자신의 고유한 창작물을 만드는 작가들은 AI에 밀려 인간의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창작물 발전을 위해 AI와 경쟁을 부추겼지만 결국 인공지능의 한계로 인해 창작물의 발전이 더딜 뿐만 아니라 창작물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결과가 생겨날 것이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대로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동물도 인공지능과 같이 저작권이 없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에 따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동물에 대한 저작권 사건이다. “미국 사진작가 슬래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사진 촬영을 갔다. 숲에 잠깐 카메라를 놓아뒀는데 나루토라는 이름의 원숭이가 슬래터의 카메라로 셀카를 몇장 찍었다. 이 후 슬래터는 이 사진을 자신의 책에 포함했는데, 동물보호단체가 원숭이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이유로 슬래터에게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에서 나루토의 셀카 사진을 위키피디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슬래터는 저작권을 이유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위키피디아 측은 동물이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슬래터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글처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국가에서도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

다.

## 2-2. AI의 저작권 침해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도 있지만, AI의 저작권 침해사례도 있다. AI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창작물을 허락없이 가져와 학습하고, 창작물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자신의 창작물로 만드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유명 팝가수 드레이크와 위켄드가 부른 ‘하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노래가 유튜브, 틱톡 등에 올라왔다. 각각 27만, 1500만건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음성이 아닌 생성형 AI가 부른 노래였던 것이다. 원곡자 드레이크는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을 근거로 문제 삼았다. 지난 1월에도 영국의 대표적 생성 AI 스타트업인 ‘스테빌리티 AI’가 게이미피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AI의 저작권 침해사례도 심각하다.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므로써 피해를 받는 것은 기존에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던 작가들이다. 작가들이 만든 창작물을 학습하면서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게 창작물을 만들어 가면서 작가들의 설 자리를 빼앗아 잃게 만든 것이다. AI가 저작권을 침해해도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기도 어렵기에 작가들에게는 AI의 저작권 침해는 두려운 일이다. AI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해도 AI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지 잘 모르기에 통제를 하는 것도 어렵다.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AI 창작물에 대한 보호도 포기할 수 없어 저작권 침해를 당해도 묵인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하지만 AI 창작물을 위해 저작권 침해 기준을 낮추어 가면서까지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옳은 지는 고민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

## 3-1. 반론

창작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AI 산업에서 AI 저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해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을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AI의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해 2월에 국회에 상정되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 3-2. 재반론

우리나라 현행법상 AI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AI의 창작물은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 창작물에게 저작권을 주면 원숭이 나루토가 찍은 셀카에도 저작권을 주어야한다. 관련산업이 저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AI 관련산업을 발전시키자고 기존 창작물을 낸 작가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견이 목살되면 안된다. AI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나타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작가들과 AI 창작물 개발자들이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절충안이 마련되면 그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AI 저작물도 보호하고 기존의 작가들도 보호하는 그런 대체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AI 저작물 보호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모두가 저작권으로부터 평등한 저작권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예로 든 원숭이 나루토 사건만 봐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 또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이라 인정할 수 없다. 저작물로 인정하면 수많은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 생길 게 뻔하다. 조금씩 천천히 관련법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수용할 수 있겠지만 성급하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AI 창작물을 만들면서 생기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기에 AI에서 저작권을 부여해주자는 주장은 성급한 결정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K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AI 창작물 발전도 필요하다. 신속히 AI 창작물 관련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저작권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AI 창작물 발전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모두가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AI에게 명령하고, 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개발자가 책임을 져 처벌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AI 창작물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AI를 통한 창작활동도 활발해져 세계 속에서 AI 창작물 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경쟁하여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 5. 참고문헌

정연호, “‘음악, 글, 사진’도 AI가 만든다...AI 창작물에도 약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해”, IT동아, 2022.09.30. 수정, 2023.05.23. 접속 <https://it.donga.com/102837/>

이상우,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인정받을까?” 아주경제, 2022.03.07. 수정, 2023.05.23. 접속 <https://www.ajunews.com/view/20220306222717831>

최희식,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2017.11.15. 수정, 2023.05.23. 접속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1140714084>